

한중경제포럼

제23-06호 2023년 12월 29일

미·중 관계의 새로운 진전 및 한·중 관계 전망

2023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미·중 관계의 새로운 진전 및 한·중 관계 전망
2. 일 시: 2023. 12. 21(목) 14:00~16:00
3. 발표자: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원 왕권성(王俊生) 주임

1. 미·중 관계의 본질

□ 미·중 관계의 본질

- 미국은 국력이 중국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의 관점에서 미·중 관계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전략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주요 전략적 조치는 '안보-경제-외교' 삼위일체의 형태를 이룸.
- [안보] 미국은 중국위협론을 과장하며 안보 물품 제공 및 동맹·동반자 관계 형성 등 수단을 사용
 -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 네 개 지역에서의 무기 업그레이드 및 군사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압력을 가함.
 - 미국은 남중국해 필리핀에 군사기지 네 곳을 추가 배치하고 다오위다오(钓鱼岛) 문제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에서도 동맹을 강화
 - 소위 '의지 동맹(意願聯盟)', 즉 3~5개 국가로 구성된 소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을 견제 : 미국은 한·미·일 안보동맹, 미·일·필리핀, QUAD(미국·일본·인도·호주)를 비롯한 동맹을 맺어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 NATO 아태화를 적극 추진 : 지난해부터 NATO 사무총장이 아시아 지역을 빈번히 방문하였고, 인도와 중국-인

도 국경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일본·한국·호주·뉴질랜드 4개 국가의 지도자들도 지난해 처음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NATO 아태화가 현실화되고 있음.

- [경제] 'CHIP 4' 제재 외에 미국·일본·한국·네덜란드 4개 국가가 노광장비 영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금수조치를 강화
 - 12월 미국과 멕시코는 양국 간 산업체인이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중국이 對멕시코 투자를 통해 미국 기술을 간접적으로 습득할 것을 우려하여 외국인 투자 심사를 위한 양자 실무그룹 설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향후 다른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외교] 전략적 상황 조정 및 소다자주의 등 수단으로 중국을 고립시킴.
 - 미국은 중국을 독재적인 전제국가로 과장하며 가치관 외교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시도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이미 2차례 개최되었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독재국가로 과장하며 중국 고립을 목적으로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가함.
 - 동맹·동반자 관계를 확대하면서 양자 간 협력은 힘이 부족하고 다자간 협력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미·일, 미·일·필리핀, QUAD, AUKUS 등 각기 다른 형식의 소다자 메커니즘을 맺어서 중국을 압박
 - 미국은 중국 주변의 영토분쟁 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분쟁 제기국(声索国)을 오히려 지지 : 이전에 다오 위다오, 남중국해 등 문제에서 미국은 해당 국가를 지지하고 보호할 뿐 영토 주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오위다오 문제와 중국-인도 국경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중국의 신장·티베트·홍콩·대만 등 문제에 대해 관련 국회 법안을 상정하여 법적으로 중국 내정에 공공연히 개입
- 안보·경제·외교 측면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특정된 구체적인 시기나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포괄적인 것임.

□ 미국의 동기 및 목적

- 중국을 최대 경쟁국이자 최대 도전자로 규정
 - 미국은 러시아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국력은 점차 쇠퇴하고 있어 미국에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국력이 강한 데다 미국에 도전할 의사가 가지고 있는 국가로 판단함.
 - 2017년 10월 이전 미국 학자들은 중국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2017년 11월 19차 당대회가 개최된 이후부터 중국에 대한 평가가 모두 부정적으로 바뀜. 당시 중국은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일류 해군을 건설할 것이라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미국은 이를 근거로 중국이 자국에 도전할 것이라 판단함.
- 특히 미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을 몰아낼 것을 우려
- 미국은 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의 힘을 빌려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중국을 압박하고자 함.
 - 미국은 제1열도선 등 열도선(島鏈)을 통해 중국 주변 지역에서부터 대중 압박을 시도
- 미·중 관계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을 최대 전략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안보·경제·외교적 수단, 특히 안보적인 수단을 이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주변 지역을 통해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그림 1. 중국 열도선의 위치 분포



2. APEC 정상회의가 미·중 관계에 미친 영향

□ APEC 정상회의

- 2023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시진핑 주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동시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함.
-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가졌다는 것이며, 네 시간 동안의 회담으로 볼 때 비교적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APEC 회의 기간에 개최된 정상회의는 미·중 관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단기간 내, 최소 향후 1년 동안 미·중 양국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 이번 회담에서 미·중 양국의 관심사

-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샌프란시스코 비전'
 - 미·중 양국은 경쟁 관계가 아닌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함께 확립함.
 - 대만 문제 등 이견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로 '원칙의 한계'를 이해함.
 - 상호 이익의 협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 메커니즘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마약 금지 등의 협력을 전개함.
 - 대국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국제사회에서 더욱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며 국제적 이슈 해결에 대한 미·중 양국

의 협력을 추진함.

- 인문 교류를 함께 촉진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학자들은 미국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으로 유학하려는 중국 학생들도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양국 간의 인문 교류가 제약되고 있음.
- 바이든이 재확인한 다섯 가지 약속
 - 미국은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 중국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지 않음.
 -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지 않음.
 -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 중국과 충돌할 의지가 없음.
- 미·중 양국 정상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중국이 제기한 내용에서는 '~해야 한다'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반면, 미국은 '~하지 않다'처럼 보다 부정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APEC 정상회의는 미·중 갈등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음.

- 미국은 중국과의 마약('펜타닐') 퇴치 협력, 양국 간 군사 고위급 소통 재개,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주목
 - 미국 입장에서 마약 퇴치 협력은 인류 생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며, 양국 간 군사 고위급 소통 재개는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중국은 미국이 다시 중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동시에 대만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 미·중 양국은 모두 국내 정치에 주목
 - 중국은 이미 엔데믹을 맞이했으나 경제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민생, 취업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자 함.
 - 미국 내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분쟁 및 분열 문제 등이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되기 위해 안정적인 미·중 관계 유지를 외교 실적으로 삼고자 할 수 있음.
- 외교적 측면에서 미·중 양국은 모두 협력을 통해 관련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미·중 관계의 전제하에 자국의 내정 문제에 집중하고자 함.
- 단기간 내, 특히 2024년도에는 미·중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인 미·중 관계는 여전히 매우 취약할 수 있음.

- [국력] 2022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8조 달러로 미국 GDP의 약 70.7%에 달하며, 양국 간 국력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
 - 다수의 중국 경제학자들은 2033년경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34조 달러, 미국이 33조 달러가 되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따라잡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국내총생산과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한 나라는 없었음.
 - 현재 중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

지 이유가 있음.

-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서비스무역 부문에서는 미국에 뒤처지나 상품무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초월하였음.
- 10~20년 전에 비해 중국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노동력이 많아지고 있음. 택배 기사만 해도 대부분 대학교 졸업자임. 그러나 현재 중국의 인건비가 서구 선진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이며, 현재 중국에서 월급이 1만 위안 이상에 달하는 인구수가 4,0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임.
- 시장·노동력·풍부한 자원 등을 종합해서 보면 많은 학자는 중국경제가 매년 6%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외부 시각에서는 중국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에서도 많은 국민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민이 중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당시의 교훈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음.
-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향후 중국과 미국 간의 격차가 점점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경쟁자로 보는 정책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정책]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한 결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전히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고, 중국은 국력이 제고되면서 경제무역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아시아 지역과의 외교를 중시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18차 당대회 이후 러시아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고, 19차 당대회 이후는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하였으며, 20차 당대회가 끝난 후 먼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하였음.
- 아시아 지역에는 현재 총 15개의 다자 협력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중 다섯 개는 2012년 이후 중국이 추진하여 추가되었음.
-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란찬강-메콩강 협력, 아시아문명대화대회, 중국-중앙아시아 협력 체제는 모두 중국이 18차 당대회 이후 추진한 것임.
- [안보] 중국은 對아프가니스탄 정책을 제시하였고,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정책과 입장을 언급하였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쌍중단'과 '투트랙' 정책을 제기하고, 러-우 분쟁과 관련해 특사를 파견하는 등 안보 측면에서도 아시아 지역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
- 정책 측면에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을 더욱 중시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이 자신을 아시아 지역에서 몰아낼 것을 우려하여 중국과의 대립 문제가 더 심각해짐.
- [가치관 및 제도] 미국의 '기독교 선민의식'과 '중국 특색', 워싱턴 컨센서스와 중국 모델처럼 미국은 자국의 체제가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이 제기한 모델이 가장 특색이 있다고 봄.
- 미·중 양국의 국력, 정책 수립 및 계획, 안보, 가치관 대립 등을 고려하면 향후 미·중 양국은 치열한 경쟁 관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양국은 모두 '싸우되 관계를 깨지 않는' '취약한 안정'을 희망
 - 국제·외교 측면에서 양국이 모두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국은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양국 국내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해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국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미·중 양국은 모두 상대방을 완전히 이길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안정을 오랫동안 계속 유지할 것임.
 - 수년 전 미국은 미·중 협력을 제안하였지만, 중국은 해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3. 한·중 관계의 발전 전망

□ 한·중 관계

- 중국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요시함.
- 현재 양국 관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견을 관리·제어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며, 나아가 양국 관계 발전을 점진적으로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수년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 관계를 단순히 양자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지역적·국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
- 한국은 선진국 중 하나이지만 중국은 한국을 늘 서구의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해 왔음.
- 한·중 관계의 발전은 북·중 관계와 중·일 관계는 물론 미·중 관계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침.

□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

- [정치]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임.
- 중국은 21개 인접국 중 18개 국가와 '전략적' 관계를 맺었으며, 그중 가장 일찍 관계를 맺은 4개 국가는 인도(2005), 일본(2008), 한국(2008), 베트남(2008)임.
-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은 18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특정 국가를 단독으로 방문한 사례임.
- 중국 국가주석의 해외 공식 방문은 일반적으로 여러 국가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이나 2014년에 처음으로 한국을 단독 방문한 후 2019년에 북한을 방문함.
- [경제] 한·중 간 경제협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함.
- 한·중 양국 간 무역 관계는 미국-캐나다와 유사하고,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러한 무역 관계는 양국에 대해 모두 중요함.
- 한국은 중국의 제2대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많은 중국 지방(省)의 최대 무역파트너이기도 함.
- 전략적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는 중국과 한국의 공동 이익과 관련됨.
- 올해는 6자회담 20주년인데, 2003년부터 2009년까지가 중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긴밀하게 협력했던 기간임.
- 중국이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말은 절대 빈말이 아님.
- 사드 사태 시기처럼 한·중 관계가 매우 긴장되었던 시기에도 중국은 사드 관계를 다룰 때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중 하나는 한·중 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음.
- 물론 당시 롯데 등 사드 관련 후폭풍도 있었으나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의 안정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 작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중국학자가 미국 특사보다 직급이 더 높은 특사를 한국에 파견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고 실제로 왕치신(王岐山) 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발 이후 외국을 방문한 가장 높은 고위직의 중국 지도자였음.
- 현재 한·중 양국은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도 1992년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함.

-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많은 중국 학자가 사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으나, 현재 중국 학자들은 최근 몇 년간 한·중 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또한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의외임.

□ 현재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

- 대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 중국은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왔음. 작년 12월 28일 한국 국회 부의장의 대만 방문 시 중국은 그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았고, 또한 작년 12월 28일 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크게 비판하지 않았음.
 - 만약 당시 일본 국회 부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면 중국은 분명 언론에서 이에 대해 비판했을 것임. 그만큼 중국은 한·중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를 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중 관계의 전환점은 2023년 4월이라고 볼 수 있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직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이후 중국에서 윤석열 행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함.
 - 대만 문제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한·중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한·미·일 안보동맹에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 한·미·일 안보동맹은 안보 차원에서 중국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임.
 -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주변 나라에서 시작되므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역이 동북아 지역이며, 한·미·일 안보동맹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 8월 17일 통과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에서 각각 남중국해 문제와 대만 문제가 언급되고 세 번째 단락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내용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 안보동맹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임.
 - 한·미·일 안보동맹은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배치하고 한·미·일 일체화 및 정보·데이터 공유를 통해 동맹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음.

□ 향후 한·중 관계 전망

- 2024년 한·중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음. 내년 한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이 역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한·중 양국은 서로 비난과 혐오가 없이 반드시 안정을 전제로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함. 예컨대 경제·무역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고 한국 기업인을 중국에 초청하며, 중국이 자발적으로 한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양국 비즈니스계 간의 대화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들어 경제·무역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과 대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음.
 - 양국 학자 간 상호 방문과 교류를 늘리고 한국 학자를 중국 싱크탱크에 초청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로 그동안 주춤했던 양국 싱크탱크 간의 교류를 확대해야 함. 올해 하반기부터 양국 싱크탱크 간의 교류가 많이 회

복되고 있음.

- 또한 환경, 위생, 금융, 농업 등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부터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양국 국민은 모두 청결한 환경이 필요하고, 금융분야 대화와 협력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에도 영향을 주며, 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중국과 한국은 상호보완
적 특성을 가지므로 이러한 영역의 협력을 앞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봄.
- 한·중·일 정상회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함.
 -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한·중 관계가 아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과 일본은 모두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원하고 있으므로, 대만 문제 등 그동안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다른 요인만 아니었다면 이미 지난 11월에 개최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함.
 - 한·중·일 외교부 장관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개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뿐
만 아니라 중·일 관계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므로 한·중·일 정상 간 교류가 조속히 회복되어야 함.
- 한·중 관계를 격상해야 하며 고위층 교류를 조속히 회복해야 함.
 -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1년 반이 지났는데도 한·중 정상 간 상호 방문 교류가 없었던 것은 매우 비
정상적인 일임.
- 한·중 정상 간 방문 및 교류의 관건은 내년 맞이하게 되는 △4월 한국 총선과 △북·중 수교 75주년임.
 - (한국 총선) 한국 총선이 개최되는 2024년 4월 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중국 총리가 한국을 방문
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내년의 어느 시점에서 한·중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만약 4월까지 개최되지 못한다면 선거 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의 동력이 떨어져 연말까
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음.
 - (북한-중국 수교 75주년) 며칠 전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을 방문해 내년 북·중 수교 75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지 논의하였음. 내년에는 북·중 간 교류가 많아질 것이므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중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
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고 북·중 관계까지 겹치면 내년 한·중 관계는 매우 어려
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적기라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경제, 싱크탱크, 기타 분야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대만 문제 및 한·미·일 안보동맹으로 인해 한·중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양국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하
며 이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조속히 발전시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의응답(Q&A):

Q1.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허심탄화하게 한·중 관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중 관계의 중대한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미·일 안보동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함. 이 부분을 발표자께서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음.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측면임. 북한은 18일에도 ICBM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음.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고 있음. 미국과 북한 누가 먼저 물러서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이 우려를 낳고 있다고 봄. 그래서 사실 한국의 일부 의견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평화를 향한 노력에 기여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1. 이 질문은 민감한 문제라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움. 최근 중국 언론에 북한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를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것임. 북한 핵미사일의 빠른 발전은 중국뿐만 아니라 지역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봄. 물론 북한은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것임.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임.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며 그중에도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봄. 이와 관련하여 제가 올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언급함. 미국 역대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첫 번째가 비핵화이고 두 번째가 대국 경쟁에 복종하는, 즉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이 있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한국에서의 전략적 자산 배치 등을 비롯한 대국 경쟁을 중시하고, 두 번째로 비핵화 관련 내용을 중시함. 세 번째로,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중 간 협력이 절실함. 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및 안정 등 측면에서 많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음. 다음으로 중국·미국·러시아·북한·일본·한국 등 여섯 개 국가 중 동북아 지역의 냉전 구도를 가장 바라는 국가는 어디인가? 또한 누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가? 그중에서 냉전 구도를 가장 원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한국임. 따라서 현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 협력 강화가 가장 필요함.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난해 윤석열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한국과 중국의 한반도 담당 특사가 두 차례의 전화 통화를 가졌으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Q2. 미·중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함. 방금 발표 자료를 말씀하실 때 202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GDP의 약 70.7%에 달하며, 양국 국력 격차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를 다루면서 특히 올해 8월에 왕원 중국인민대학교 총양금융연구원 집행원장(王文,中国人民大学重阳经济研究院执行院长)이 발표한 내용 중 2021년도에 중국 GDP가 미국의 77%였는데 2022년도에 70%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 63%까지 다시 떨어졌다는 내용을 인용하였음. 또한 올해 미국 국회에서 언급한 경제 규모 관련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추정한다고 함.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시장, 노동력 등을 예로 들어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셨고, 중국

과 미국의 GDP 격차가 줄어들면 미·중 관계가 위험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격차가 계속 벌어지거나 차이가 유지되면 미·중 관계가 안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피크 차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2. 우선, 제가 경제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음. 하지만 중국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 그리고 질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의 중국에 대한 기대심리가 변화되었음. 10~20년 전만 해도 중국의 당시 GDP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았으나 중국 GDP가 미국 GDP를 초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피크 차이나'처럼 중국경제가 정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국외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존재함. 현재 중국 내에서 투자와 소비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는 위의 관점과 관련이 있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모든 산업의 소득과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자신감의 회복임. 중국의 평균 소득은 매우 낮아 정부가 국민의 소득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비를 증진시켜야 함. 또한 인프라를 개선해야 함. 베이징·상하이·광저우를 비롯한 중국 동부 지역의 인프라가 비교적 괜찮지만 중·서부, 특히 농촌 지역은 인프라 시설이 개선될 여지가 아직 많이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선 역시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함. 이처럼 내수를 확대하는 방법이 많이 있음. 개인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중국의 정책 조정이 느릴 때도 있지만, 일단 조정하기로 결정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작년에는 중국이 대국이라 고려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정책 조정이 느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정책 조정을 매우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도 거의 매일 진행되고 있고 대외 개방과 교류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 경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총량이 미국을 추월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국 1인당 GDP가 미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전망됨.

Q3. 서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안보-경제-외교' 삼위일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 및 안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다시 말해 산업의 안보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정부와 달리 기업은 이념과 가치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지난해 미국 정부는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판매를 금지하였는데 미국의 기업들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저성능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했음.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의 기업들도 전기차나 자동차용 배터리의 음극재·양극재 등 핵심 부품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하거나 아예 한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음. 그래서 기업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큰 문제임. 중국에서 정부와 기업은 경제 안보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같이 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게 볼 텐데, 같은 면과 다른 면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3. 저는 경제의 안보화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현재 글로벌 환경에서 미·중 경쟁이나 러·우 분쟁과 같은 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그래서 이미 형성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에 미국과 같이 인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됨. 미국은 자국이 산업망·공급망의 정점에 있고 중국이 중간 부분을 담당하는 것을 희망함. 미국은 중국에 일부 난제를 주

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영역을 완전히 제압하기 어렵고 중국이 기술을 갖추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와 이윤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이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Q4. 발표자께서 발표하기 전에 많은 고심과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함. 현재 사드 사태보다 더 심각한 한·중 관계의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양측이 서로 대화할 때 ‘민감하다’라는 단어를 자제했으면 함. 왜냐하면 양국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양국이 모두 인지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다면 어떤 문제들 간에 토론해야 하고,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변화 또한 거대한 이익 충돌보다는 사소한 오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기에 민감하다는 단어를 제외하고 모든 주제를 올려놓고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음.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한국이든 북한이든 아니면 동시에 두 국가든 브릭스(BRICS)에 초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4. 저는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브릭스 그룹에 초청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함. BRICS는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인데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BRICS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가입을 원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

Q5.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북한은 현재 UN 제재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싶어하고, 한국은 핵폭탄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문제를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무상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그렇다면 중국이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도와주는 대신 중국이 요구할 수 있는 대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5.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발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함. 현재 한반도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중국이 문제해결 차원에서 비교적 유리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중국과 관련 국가들이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의 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중국이 한반도 안정 유지를 대한반도 정책의 네 번째 원칙으로 포함하기를 희망함.